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수기 공모전

부문	학위과정	성명	박소연
제 목	인생 2막을 열다		
<p>내 나이 쉰 둘, 열 살 된 늦둥이 아들을 학교에 내려주고 서둘러 달리는 출근길은 강릉의 하늘만큼 푸르고 활기차다. 세 학기째 학생들은 재택 비대면 수업 중이고 대학 캠퍼스는 썰렁하지만 집중 수업기간이라 2주간은 학교를 방문한 학생들로 캠퍼스가 북적일 터이고 덩달아 기대와 설렘이 교차되는 학생상담센터 상담사의 발걸음이 가볍다.</p> <p>그러나 10년 전에는 하늘이 이렇게 높고 푸른지 몰랐다. 40대에 접어든 나는 시골 살이 10년차에 남편과 장 담그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었지만 여전히 몸을 쓰는 일들이 서툴렀고 지병으로 불편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초등학생 아들 돌봄으로 집안에서만 뱅뱅 도는 산골 아낙이었다. 어머니뻘의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터놓고 교류할 사람도 없고 아이 등 학교 픽업으로 뻘뻘한 일정은 주위에 눈을 돌릴 겨를을 주지 않았다. 꽃이 피는지 낙엽이 떨어지는지 모른 채 세월이 획획 지나가고 있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여유가 있어 차를 나누던 남편이 ‘당신은 뭐하고 싶어?’ 라고 물었다. 평소 장난기가 많아서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곧 진지하게 던진 질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무엇을 하고 싶은 지 자문을 해보았지만 딱히 떠오르는 일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지, 지금 제약이 되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뭐든지 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 같다. 그날부터 고민이 시작되었고 무엇을 해야겠는지 생각은 나지 않고 무언가는 해야할 것 같은 초조감에 명치 끝에 뭔가 매달린 것처럼 불편했다. 그러다 우연히, 아주 우연히 네이버 화면에 노출된 배너가 눈에 들어왔다.</p> <p>「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p> <p>갑자기 쿵! 하더니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다.</p>			

나는 공부를 하고싶었다. 화학을 전공했지만 어릴 적 꿈인 과학자는 지방대학에 진학하면서 접었고, 심리상담연구소에서 행정인력으로 몸담았지만 심리학 전공자도 아니고 딱히 상담에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흥미가 끌려 PET강사가 되었을 뿐 상담이 내가 가야할 길이라는 생각은 언감생심 없었던 나이기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알 수는 없었지만 막연히 끌리는 사이버 대학원이라는 생소한 낱말에 꽂혀서 밤잠을 설쳤다. 그리고 며칠 동안 대학원 홈페이지를 들락거리며 꼼꼼히 살폈다.

커리큘럼을 보고 샘플 강의도 들어보고 오프라인 수업계획도 확인했다. 생소해서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사이버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화로 문의한 후에 "오케이!", 남편에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현실은 십년 넘게 경력단절, 사회단절, 생각단절의 시간을 보낸 40대 주부에게 호락호락 할 리가 없었다. 한양사이버대학원에서 국내 최초로 개설한 심리상담 전공 과정에 도전하는 숨은 고수들이 너무 많았고 1차(서류) 합격에서 품은 큰 기대는 면접에서 미끄러지는 더 큰 실망으로 돌아왔다.

두번째 도전에 또 한 번 낙방했다.

'내 처지에 무슨 공부' 라는 자조 섞인 탄식이 절로 흘러나왔고, 돌아보니 편찮으신 아버지와 어린 아들에 밀린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보였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겠는가!' 싶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도전하면서 살아도 같은 시간이 흘러가지만 3년후의 삶은 많이 다르지 않겠냐며 어렵게 마음먹었을 때 한 번만 더 도전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남편의 간곡한 회유가 아니었다면 단연코 지금의 나는 없다. 나는 삼수 끝에 한양사이버대학원생이 되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심리상담전공!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다. 한 학기를 신들린 듯 공부에 몰두했고 강의를 듣고 또 듣고 평균 5번은 들었다. 일하면서도 틀어 놓고 요리를 할 때도, 장독대에 나갈 때도 앞치마에 mp3를 꼭 챙겼다. 사우나에 가면서 목욕 가방은 차에 놓고 mp3만 달랑 들고 내린 적도 있다.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교수님의 목소리 톤과 농담까지 외울 지경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내용은 먼 나라 이야기만 같았고 한글로 된 텍스트를 읽고 있으나 독해가 되지 않아서 같은 줄을 여러 번 읽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 맥이 빠지고 용기를 잃었다.

첫 학기에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공부의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었고 닥치는 대로 맹목적으로 지식의 허기를 채우던 만학도는 드디어 인생의 지도를 그려 놓고 퍼즐을 맞춰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연과학의 언어가 인문학의 본질과 소통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았고 상담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여겼던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의 틀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과목에 올인했다. 두 번째 학기의 심리평가 과목은 오아시스의 단비처럼 좌절했던 나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하며 과수석과 전액 장학금이라는 영광으로 돌아왔다.

심리검사 도구 중에서 가장 난해한 검사인 로샤 검사를 배우는데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함께 공부하자고 의기투합한 몇몇이 스터디 모임을 꾸렸다.

매주 화상 회의로 코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토의하고 그래도 모르는 것은 교수님께 여쭙보자는 취지였는데 혼자 하던 공부가 함께 하니 시너지가 생겨나고 화상이지만 매주 만남을 갖다 보니 도반을 만난 수행자들처럼 끈끈해지고 열의가 불타올랐다.

지하조직이던 우리 스터디 모임은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사이 심리평가 교수님께 정체가 드러났고 우리의 행보를 기특하게 여기셨던지 성심으로 우리의 공부를 도와주시던 교수님께서 컨퍼런스를 제안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과의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는 연 2회의 정기 컨퍼런스를 열게 된다. 실행력과 친화력이 좋은 과대 표들이 힘을 모아 학교 동아리 '골든로샤'로 정식 출범하였고, 사이버 세상에서 만난 우리들이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잠을 쫓으며 서로의 꿈과 노력을 지지하며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보태 만든 결과물을 모두에게 보여주던 그날, 우리는 모두 감동하고 감격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가! 그해 겨울 우리집에 놀라운 사건이 생겼다. 십년을 기다리다가 사실상 포기한 둘째가 임신이 된 것이다. 오랜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온 생명은 신의 축복이 분명했으나 나의 비전은 변했고 이제 막 발걸음을 떤 향해의 여정에는 육아와 늙은 엄마의 삶을 놓지 않았는데....., 마흔이 넘은 노 산모라서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 요인이 시시각각 생겨났고 아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모성애가 나의 비전과 갈등을 일으키고 죄책감을 가져와 날마다 갈팡질팡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병으로 바깥출입을 못하시던 아버지의 병환이 악화되셔서 입원까지 하시게 되니 책상에 앉아 강의 들을 여유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 어머니도 안 계시니 아기가 태어나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 현실도 학업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게 했고 생업과 육아, 간병, 신생아까지 감당할 자신이 없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나 자신을 추스르기도 버거웠다. 그래도 지금 멈추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고 어렵게 찾은 꿈을 버릴 수 없다는 집념으로 버텼던 것 같다. 그러는 사이 우리 아기는 무수한 난관을 뚫고 무사히 세상에 나왔고 아기는 순해서 무릎에 올려놓고 흔들면서 몇 시간씩 강의를 듣고 스터디 모임을 해도 강의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도 잘 자고 잘 울지도 않았다. 아기를 업고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조별 발표를 한 적도 있었는데 칭얼대는 소리 한번 내지 않아서 순둥이 효자라고 이모 팬들의 칭찬 세례를 받기도 했다. 그렇게 아기와 함께 내 삶을 꾸려가는 것에 익숙해질 무렵, 논문만 통과하면 졸업이니 이제 거의 다 왔다 싶은 순간에 아버지께서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셨다. 앞산에 흰 눈이 채 녹지 않은 3월 어느 날, 나는 가 노란 말도 없이 가신 아버지.

생명의 윤회인가,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보여드리자 자리보전하시던 아버지께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앉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고, 유모차에 잠든 아기 발을 만져보며 엄마에게 가서 전할 말이 있어 좋다며 미소를 머금고 한없이 들여다보시던 생전의 모습이 떠오르면 한참씩 삶이 정지되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와는 달리 40대에 겪는 천애 고아가 되는 일이 기록하지 않았다. 나는 논문을 한 줄도 쓰지 못했고 동기들은 졸업을 했다. 일상은 전과 다름없이 바쁘게 흘러가고 무언가를 꿈꾸며 살던 그 시간이 아득하기만 했다.

그 즈음 골든로샤 멤버들이 나를 많이 챙겼던 것 같다. MT를 꾸려 우리집으로 쳐 들어 오기도 했고 북 리딩을 하자고 꼬시기도 하고 급기야 임상심리사 자격증 준비 스터디를 만들어 일주일에 몇 번씩 화상회의로 불렀다. 그렇게 최연소 골든로샤 멤버인 돌쟁이 아기를 데리고 밤마다 공부에 몰입하면서 에너지가 회복되어갔다.

기러기들이 서식지를 옮길 때 몇만 킬로를 비행하는데 단 한 마리의 낙오자 없이 이동한다고 한다. 그들의 비결은 ㅅ자 대형을 이루고 비행을 할 때 힘이 센 젊은 기러기들이 선두에서 힘찬 날개 짓을 하면 그 때 생기는 양력으로 날개를 받쳐줘서 쉽게 날 수 있게 돕는 방식인데 힘센 수컷 기러기, 보통 수컷 기러기, 암컷 기러기, 어린 기러기 순으로 배열을 하고 선두의 리더 기러기가 힘이 빠지면 다음 기러기가 교대해서 휴식을 취하게 해주고 약한 자들도 긴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이다. 누군가 총에 맞거나 병이 나면 힘센 기러기가 남아서 회복하여 함께 날 수 있도록 보살펴 끝까지 데려간다고 하니 동료애와 공동체의 힘이 자못 감동적 이기까지 한데 당시에 나의 동료들이 나에게 한 것은 기러기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우울의 늪으로 빠지기 직전에 내 기러기 동료들에 힘입어 비행을 다시 시작했고 그 해 우리 스터디 원 전원이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기러기들이 그렇듯 우리도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모두 함께!

그리고 나는 1년 뒤에 논문을 마치고 석사 학위와 성적 우수상을 받으며 졸업했다.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도전한 지 10년!

그 동안 강산이 한 번 바뀌었고 내 삶도 바뀌었다. 그 때 태어나 골든로샤 스터디와 엄마의 모든 자격증 공부를 함께 하며 성장한 우리 꼬맹이는 올 해 열 살이 되었고, 당시 열 살이던 큰 아이는 대학생이 되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나는 대학교 학생상담 센터에서 대학생들을 상담하며 심리검사 도구를 배우기 원하는 학교 상담 선생님들과 케이스 스터디 모임도 하고 있다. 가끔은 지식 나눔도 하면서 임상심리사로 즐겁게 살아가는 중이다. 현장에서 열악한 여건에서도 공부하고자 하는 후배 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나는 주저 없이 우리 대학원을 추천한다.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었지만,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장을 일찍이 열어주었던 한양사이버대학원의 선두적 발 걸음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학원에서 얻은 것이 어디 지식과 학위뿐이라!

스터디와 동아리 창립에 공이 지대한 과대표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자매처럼 지내고 있고, 일명 '로샤 자매들' 도 지금까지 자주 연락하고 가끔 언니가 보고 싶다며 강릉까지 KTX를 타고 빛의 속도로 달려와 종일 이야기를 나누다 간다. 심지어 그중 한 명이 인도에 4년이나 나갔다 왔지만 인도 마담이 되었을 때에도 시차를 맞춰 매주 북 리딩을 하던 그 열성으로 십 년 세월을 함께 했으니 평생 동반으로 함께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의 기러기 동료들이 없었다면 현재의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나 또한 어느 날엔 가는 동료 기러기의 날개 씬을 위해 열심히 날개 짓을 하는 날이 있었겠고 또 앞으로도 서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 얼마나 황홀한 고백인가! 서로 사랑한다는 그 말처럼.

나는 이제 50대가 되어 또 다른 꿈을 꾀다.

10년 전에 그렸던 지도의 퍼즐은 거의 다 맞추었다. 이제 새로운 인생 지도를 그려야 할 때이다. 새로운 지도의 이정표에는 나눔과 기여가 들어있으면 좋겠다. 시골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을 이어가고 내담자에게 더 나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수퍼 비전을 받고 새로운 이론들을 배우고 연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발전했겠지만, 후배들에게는 좀 더 나은 여건에서 배울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 상담 수련이 가능하고 수퍼 비전과 교육이 제공되며 현상을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종합센터를 같은 뜻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운영하는 꿈. 그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하며 푸른 하늘을 향해 달리고 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말과 뜻이 통하는 벗들이 있어서 오늘도 행복하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모시고 남편과 전원에서 아이들 키우며 살던 산골 아낙으로 서의 삶도 그 닥 나쁘지 않았으나 내가 더 좋아하고 더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게 하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붙들어준 한 사람, 덕분에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공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의 인생을 펼쳐보도록 기회를 준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엄마의 삶에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를 주는 두 아들에게도 감사와 축복을!